

# 제1회 포교활동수기 공모

“전법의 서원을 실천하는 포교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 제1회 포교활동수기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은 전국의 많은 포교현장에서  
불철주야 포교에 진력하는 포교사의 포교활동을 격려하고,  
포교원력을 증장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제1회 포교활동수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 공모전은 지난 5월 6일(토) 포교원에서 실시한  
“전법 ON! 부처님 법 전합시다” 포교원력 선포식 캠페인에  
동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사정대경진겁 신위상좌변삼천 (假使頂戴經塵劫 身爲狀座遍三千)  
약불전법도중생 필경무능보은자 (若不傳法度衆生 畢竟無能報恩者)

머리에 경전을 이고 몇 겁을 산다고 해도,  
이 몸이 침상 되어 삼천세계를 두루 돈다 해도  
부처님 법을 전하지 않고 중생 제도 않는다면,  
마침내 부처님 은혜를 갚지 못하는 무능한 자가 될 것이다.

뜻 있는 포교사님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불기 2567(2023)년 5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장 범일 김영석 합장

## 제1회 포교활동수기 공모전

<b>사 업 명</b>	제1회 포교활동수기 공모전
<b>주최/주관</b>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b>사업목적</b>	부처님의 전법을 실현하는 포교사의 포교활동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궁극적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승불교 이념을 달성하고자 함
<b>개설취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교사의 포교활동을 격려하고자 함</li> <li>· 포교사의 포교원력을 증장시키고자 함</li> <li>· “전법 ON! 부처님 법 전합시다” 포교원 종책에 동참하고자 함</li> </ul>
<b>사업개요</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응모대상: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li> <li>2. 포교활동수기: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A4용지 4매, 한글파일 10포인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교활동에 한하며, 신행포교 및 계층포교활동 관련 내용</li> <li>· 신행수기가 아니므로 포교활동 관련 사례, 체험 위주로 작성할 것</li> </ul> </li> <li>3. 접수기간: 2023년 6월 2일~8월 18일</li> <li>4. 보낼 곳: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메일: <a href="mailto:pogyosadan@hanmail.net">pogyosadan@hanmail.net</a></li> <li>· 우 편: 우)04617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5층 포교사단</li> </ul> <p style="margin-left: 40px;">※ 응모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기작품 출판권은 포교사단에 있음</p> </li> <li>5. 당선작 발표: 9월 초</li> <li>6. 시 상: 9월 9일(토) 10:00 (장소: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9회 팔재계수계대법회 때 시상함</li> </ul> </li> </ol>
<b>시상내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 상 (1명, 상금 300만원)</li> <li>■ 원력상 (1명, 상금 200만원)</li> <li>■ 장려상 (1명, 상금 100만원)</li> </ul>
<b>향후계획</b>	'포교활동수기집' 자료 발간

## ‘부처님의 부촉 (咐囑)’

“이제 너희들에게 부촉하노니  
너희들은 일심으로 이 법을 오래토록 유포하고  
널리 퍼서 이로움이 많게 하라.

이 법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선포하여 모든 중생들이 잘 듣게 하고  
알게 하라.

왜냐하면 여래는 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모든 것을 아끼거나 인색함이 없고, 두려울 것도 없으며  
여러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여래의 지혜, 자연의 지혜를 주시고  
여래는 곧 모든 중생의 큰 시주이기 때문이니라.

너희들은 여래의 법을 따라 배우되  
아끼거나 인색한 마음을 내기 말라

만일 중생이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여래의 다른 깊은 가르침을  
보여주고 가르쳐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라.

너희들이 만일 이와 같이 행하면  
이것이 곧 여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니라.

< 법화경 측루품 >